

특허정보진흥센터 이상철 소장 인터뷰

“지식재산권 역량 확보는 CEO의 관심과 인식에서 시작된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 보호는 중소기업에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특허정보진흥센터 이상철 소장을 만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특허의 중요성, 해외 기술 유출 등에 대한 대처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먼저 특허정보진흥센터 소장으로 선임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특허(지식재산권) 현황은 어떻게습니까?

한국 특허청의 2016년 통계를 살펴 보면 상위 18개 특허출원 법인이 우리나라 전체 내국 법인 특허출원의 무려 2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이 소수 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 18개 단체 중 중소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¹⁾ 특허를 무조건 많이 출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한 사실만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특허 전략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상반기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비중은 62.3%로, 전년 동기 60.4%에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특허출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기업의 특허출원 전략이 '양에서 질로 전환'하는 시대적 경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²⁾. 이와 같은 여러 지표를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 활동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그 속도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어 중소기업의 특허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허(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개선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중소기업 임직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예전과 달리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합니다. 실제로 특허청의 실태 조사 결과도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줍니다. 2011년 조사에서는 지식재산 담당 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31.7%였지만, 2017년에는 68.6%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식재산 담당 조직을 독립된 전담 부서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은 2011년 4.5%에 불과했고, 2017년에도 여전히 4.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³⁾. 이러한 조사 결과는 바로 이 지점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확보와 관련된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다룰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 바탕을 두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관점이라 생각합니다.

기업의 해외 진출이 중요해지면서, 기술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술

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소·벤처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99%와 고용의 88%를 책임지는 중요한 경제 주체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기술과 제품 개발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인력을 보유하거나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⁴⁾. 따라서 중소기업이 무조건 지식재산 전담 인력과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거나, 기술 보호를 위한 역량을 기업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일 것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 환경을 고려할 때 다음 세 가지가 기술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술 보호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 인식 변화입니다. 중소기업은 여건상 CEO의 경영 방침이 기업 경영 행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경영 시스템 내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활동이 프로세스로 자리 잡은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CEO의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둘째는 중소기업 내의 기술 개발 인력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기술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과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실제 연구 개발 단

1) 2016 지식재산통계연보(특허청)
 2) 지식재산 통계 FOCUS(통권 10호, 2017.9.)
 3) 2011년 지식재산 활동 실태 조사 : 2017년 지식재산 활동 실태 조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4) 2017년 지식재산 10대 이슈(www.kiip.re.kr/download.do?attach_no=7029&bd_gb=data)

“우리나라 특허청은 물론 주요 해외 특허청은 무료 특허 검색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검색 웹사이트를 이용해 기술을 조사하는 것부터 연구 개발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와 제품화 및 마케팅의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이슈가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활동을 외부 전문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실제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기술 인력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비용 대비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셋째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활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러한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이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분야의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재산의 창출과 권리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분야의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연

구 개발의 기획 단계에서 기술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선행 기술을 분석·조사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에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둘째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분야의 사업들은 주로 국내외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에 대응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또 영업 비밀의 보호와 특허 기술의 거래를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지식재산권 실무 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 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변리사 상담 서비스 등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특허청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시책 웹사이트(www.kipo.go.kr/mobile/pc/policy.html), 지역지식재산센터 웹사이트(www.kipo.go.kr/mobile/pc/policy.html)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정보진흥센터도 특허청 산하 공공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을 위한 IP(Intellectual Property) 리서치 서비스⁵⁾와 IP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조달청, MAS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 조달 제품에 대한 특허 적용 여부를 검증하는 서

⁵⁾ 특허 기술에 대한 조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는 특정 기술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 정보 조사부터 특허 획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특허성 조사와 특허 무효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무효 조사,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조사 등을 제공하고 있다.

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이노비즈협회 회원사에 대해서는 일부 조사 서비스의 비용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IP 컨설팅 서비스는 특허, 논문 등 기술 문헌을 분석해 특정 분야의 기술 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서비스로, IP 리서치 서비스와는 달리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구축, R&D 전략 로드맵 수립, 강한 특허권 형성을 위한 특허 전략 수립 등 연구 개발 기획 단계부터 제품화와 기술 거래 단계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중소기업과 개인 발명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내 특별히 이루고 싶은 점은 있으신가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향후 국내 일자리 43%가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됐으며, 여기에는 관세사, 회계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IP 분야는 기술, 법, 언어, 실무를 융합하고 새로운 발명과 산업을 연결하는 분야로 인간 고유의 장점을 유지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IP 분야는 22세기에도 반드시 인간의 손길이 필

요한 분야가 될 것이며,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는 만큼 달성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분야가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 직원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지속 성장하는 경쟁력을 갖춘 유니크한 IP 전문가 기관이 되는 것이 제가 바라는 센터의 모습입니다.

둘째, 특허정보진흥센터는 특허청 소속의 비영리 공공 기관으로, 이러한 기관 성격상 공익을 우선하고 수익은 최소화해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민간 기업처럼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일하기보다는 개인 발명가, 기업 등 지식재산이 필요한 모든 고객의 만족과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특허청 공공 사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했으며, 현재 민간업체가 우리 센터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흥센터는 공공 기관으로서 이러한 민간 기업으로 이루어진 민간 IP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기업이 투자 후 실패가 두려워 쉽사리 시도할 수 없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개발해 경영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특허정보진흥센터는?

특허청 산하 공공 기관으로, 600여 명의 특허 조사 분석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심사를 지원하는 공공 사업과 기업,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특허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허 관련 공공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국내 IP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특허 정보 서비스 전문 기관이다.